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9. 계시록의 역사적 해석의 당위성을 가르치심

2013. 03. 03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계시록 1장에 기록된 계시를 볼 때에 겪은 요한의 상태와 예수님의 신분 산 자라는 말과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1장의 마지막 구절을 살필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바르게 깨달도록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1:19,20]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1. 지난 시간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사실을 공부하면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교단들이 영혼은 불멸이고 사람이 죽으면 악인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고 의인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서 행복한 중에 영생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성경의 말씀을 왜 그렇게 이해할까요?

답: 글썄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르쳐왔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소위 영혼불멸설이 기독교에 들어오게 된 경로에는 이교의 사상에 젖은 학자들이 교인이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단은 태초에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단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고 속인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사실로 믿도록 하기 위하여 수하의 천사들을 귀신노릇하게 했을 것입니다. 귀신 노릇하는 사단의 악한 천사들이 죽은 자의 망령노릇을 하며 사람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속이고 있고 인류는 그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이지요. 성경에 영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육체를 떠나서도 생존하는 인격체인양 오해하도록 이끌었고, 그런 사상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같은 것을 영혼불멸을 가르치는 교훈처럼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하여서 심판이 있다는 것과 그 결과로 영생과 영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영벌은 영생의 반대 개념인데 존재를 영원히 상실하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말은 존재를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없어지고 악인도 없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계시합니다.

[히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시37:10]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 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너무나 분명하게 가르쳐주었는데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은 세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쯤하지요.

2. 예, 목사님, 이제 계시록 1:19절과 20절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좀 살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계속하시지요.

답: 19절과 20절은 예수께서 요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주석가들은 이것을 요한에게 주신 세 가지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첫째 네 본 것, 둘째 이제 있는 일, 셋째 장차 될 일입니다. 그래서 네 본 것은 18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있는 일은 일곱 교회에 대한 것이고, 장차 될 일은 4장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의 구조상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비록 네 본 것이 과거형 동사이지만 2절에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고 한 말씀에 비추어서 19절의 네 본 것도 계시록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2절에 자기의 본 것도 과거형 동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9절에 네 본 것을 1:18절까지의 내용으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있는 일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의 일로 한정하면, 이 일곱 교회가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모든 교회를 뜻한다는 해석과 부딪히지요. 일곱 교회가 역사적으로 진행될 모든 교회라면 4장 이후의 내용도 일곱 교회에 포함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의 내용뿐만 아니라, 요한이 계시를 볼 때에 있는 일들을 뜻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장차 될 일도 4장 이후의 일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전체에 있는 역사적 진행 전부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목사님, 그 생각은 좋습니다만,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라고 했으니 그 접속사 “과”가 문제가 아닙니까? “과”라는 말이 앞의 것과 뒤의 것을 끊어서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주석가들의 설명이 문장 상으로 합리적인 것이 보이는데요?

답: 그렇지요. 다 언어와 문법에 익숙한 학자들이 설명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요. 그러면 네 본 것은 계시록 전체가 아니고 1:18까지로 한정해서 설명해야 하지요. 또 이제 있는 일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한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해석은 미래주의적 해석을 옳다고 인정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4장 이후는 미래에 있을 사건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있는 일과 연속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것과 라는 말씀도 계시록 전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역사에 일어나는 연속적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지요. 이미 말씀드렸지요. 우리교회는 계시록 해석을 역사주의적 방법으로 한다고요. 다니엘서도 그렇지요.

4. 역사주의적이라는 것은 계시된 사건이 역사적으로 연속적 사건이라는 뜻이 아닙니까?(그렇지요.) 그런데 왜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한정적인 표현을 했을까요?

답: 그 문제는 이미 일곱 교회의 위치에 대하여 말할 때에 설명을 했는데, 목사님이 잊으셨어요?(아닙니다. 애청자들에게 상기시키는 의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곱 교회의 이름의 뜻

에도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해야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장 3장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다니엘서를 강론하면서 2장이 다니엘서 전체 계시의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됩니다. 아울러 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계시록 전체의 프레임이라고 말한 것도 기억이 나네요. 다니엘서는 국가의 역사적 진행을 중심으로 구원의 복음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시해 주신 것이고, 계시록은 교회의 역사적 진행을 중심으로 구원의 복음 사업의 진행을 계시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2,3장에 기록된 일곱 교회는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복음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의 프레임을 이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가르쳐준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 모두 이 일곱 교회의 역사적 진행과 관련해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지요. 일곱 교회 이후에 기록된 계시들도 일곱 교회의 범위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5. 목사님,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건이라고 보기에는 문장과 문법상으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성경말씀은 연구할 때 문장과 문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가 나타내는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접속사 “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에 연속성이 없고 각각 그때의 사건으로만 이해해야 된다고 말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주님의 칭호는 예수님이나 성부가 시작과 끝일뿐 연속성이 없다고 말해야 맞을 것이 아니겠어요. 또 시작과 끝이라고 하셨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으니 중간에 연속성이 없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지요. 사실이 그렇고요. 이런 사례에 비추어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19절 말씀은 이제 있는 일로부터 장차 될 일까지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9절은 계시록의 예언을 교회의 역사적 진행을 중심으로 연속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계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계시록 자체에 기록된 유일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역사주의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성경의 근거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에 기록된 에베소 교회부터 3장에 끝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는 사도 시대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역사의 종말 시기까지의 교회의 역사적 진행에 대한 사건들을 계시한 것이고, 그 외의 기록들은 일곱 교회의 프레임 안에서 세상과 교회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계시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6.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깐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가 단순히 요한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9절 말씀의 해석을 들으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해석이 아주 성경적이라는 확신이 확실하게 오네요. 참 감사합니다.

답: 감사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역사적 사건을 계시한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볼 그 당시로부터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때까지 이 지구의 역사적 사건의 진행을 교회가 역사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서를 강론할 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창세기 3:15절에 구원에 대한 최초의 예언을 하실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투쟁을 계시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 성경 기록의 초점은 모두 인류를 구원하시

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자의 후손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여주시는데, 즉 구원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성경의 예언은 이 구원의 복음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됩니다. 예언뿐만 아니지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지요. 이 구원의 복음은 사람을 표상으로 또 사건과 제도와 예언 등으로 아주 다각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는데, 사단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구원복음의 계시에 맞장을 뜬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려고하면 사람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사건은 사건으로 제도는 제도로 예언은 거짓 예언으로 맞서서 복음을 흐리고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민족을 통하여 일할 때에는 사단도 국가와 민족을 동원하여 방해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처음부터 종말까지 다 보시기 때문에 그것을 계시로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셔서 사단의 술수에 속지 않게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다니엘서에 국가가 예언의 중심에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주변의 강대국들을 통하여 방해하려는 사단의 도발을 가르쳐주신 것이지요. 그것의 프레임이 다니엘 2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하여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세계 역사를 계시해 주셨는데, 사단이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사업을 어떻게 방해하는지 다각도로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계시록 전체의 프레임으로 1~3장에 기록하게 하신 것이지요.

7. 예, 그렇군요. 다니엘서를 강론할 때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들으니 새롭게 새겨집니다. 우리가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을 연구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을 명심하는 것은 참 중요하겠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는 물론 요한 당시부터 재림 때까지 일곱 시대의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당시 교회의 영적 상태는 역사적으로 진행될 일곱 교회 시대의 영적 상태를 잘 표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 교회에만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확인됩니다. 계3:10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환난이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고 한 것이 빌라델비아 한 교회의 경우가 아니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계시록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과거주의나 미래주의적 사상으로 연구하면 바른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8. 예, 옳은 말씀입니다. 19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을 설명할 차례이네요.

답: 지금 문득 생각나는데요. 마지막 구절로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산 자라고 한 말씀을 설명하면서 좀 미진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하고 마지막 구절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산 자라고 소개하셨지요. 또 전에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아담의 죽음, 곧 아담 안에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롬5:18에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고 했습니다. 그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될 사람의 씨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것은 곧 아담에게 사람들이 태어나는 사실을 확인시킨 것인데, 여자도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자는 아담 안에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결혼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는데, 아담이 여자 외에 한 사람도 태어나게 하기 전에 선악과를 먹고 태어나게 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을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고 가르쳐준 것이지요. 이렇게 된 아담과 그의 후손을 사망의 정죄에서 생명으로 옮길 길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아담의 이 한 범죄인 사망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담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곧 산 자라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바울은 이것은 롬5:18에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의 한 행동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죄에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에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망과 죄에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 자이신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이고 구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어서 산 자가 됩니다. 예수께서 1:18에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고 선언하신 것은 바로 이런 구원복음의 핵심 사실을 가르쳐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산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지요. 세상에서도 죽은 자는 산 자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땅으로 가야합니다. 다윗은 “내가 산 자의 땅에 있음이여 여호와와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시27:13)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지 않으면 산 자의 하나님과 산 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산 자의 땅에 있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산 자가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을 다 못한 것 같습니다.

9. 예, 목사님, 참 멋진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 20절을 말씀하시지요.

답: 20절은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입니다. 예수님의 오른 손에 있는 일곱별과 일곱 촛대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지요. 일곱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요. 다니엘서에 많은 사람들을 옮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한 말씀을 읽어보았지요. 그런데 여기 사자라는 말이 양겔로스인데, 영어로는 angels입니다. 천사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자가 천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겔로스는 사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마11:10절에는 침례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를 양겔로스라고 했습니다. 즉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 막1:2에도 있습니다. 눅7:24에는 침례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어 메시야가 맞느냐고 물었지요. 거기에 “요한의 보낸 자”라고 했는데, “보낸 자”가 양겔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심부름꾼이라는 뜻도 있지요. 그런데 일곱 교회의 사자는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를 받는 자들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편지를 전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사자를 천사로 보는 것은 본문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지요. 그래서 일곱 교회의 지

도자들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잡혀서 인도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10. 당연히 그렇지요. 양겔로스라는 단에 집착해서 전체의 상황을 무시하면 바른 이해가 될 수 없겠지요. 목사님, 말씀은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석가들도 그렇게 했지요?

답: 양겔로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한 것으로 귀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이제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만 남았지요. 이것은 4절과 11절을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지요. 일곱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일곱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 일곱 도시는 로마의 우편대로를 따라 형성된 일곱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가서 버가모를 지나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순서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창조의 원점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암시하는 여정 같다고 했지요. 이름의 의미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고요. 이름의 의미는 2,3장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터키이거든요. 이 일곱 도시가 다 터키에 있는 도시입니다. 초대교회의 유적지를 방문하려면 이스라엘이나 애굽에 가는 것이 아니라 터키에 가야 합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도 터키에 있고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녔던 지역도 터키에 있지요. 이 일곱 도시의 이름은 지금 라오디게아만 빼고 다 달라졌습니다. 에베소는 셀주크이고, 서머나는 이즈미르, 버가모는 베르가마, 이것은 비슷한 발음이지요. 두아디라는 아크히사르(아키사르), 사대는 살리히리, 빌라델비아는 알라세히르, 라오디게아는 아직도 라오디게아입니다. 터키에 관광을 가면 이 지역들을 찾아볼 수 있겠지요. 초대교회 유적지를 찾는 관광계획을 세우고 관광을 가면 안내자가 잘 안내하겠지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2,3장에 기록된 대로 당시의 교회 내부가 그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읽어보면 당시의 교회 사정을 상징으로 역사적으로 진행되는 교회의 예언적 계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그 이름의 뜻이 어떻게 예언적으로 역사적 발전을 하는 교회들의 상태를 표상합니까? 2,3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신다고 했지만 여기서 미리 잠깐 말씀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답: 그래도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이름의 뜻을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2장에 들어가면서 먼저 그 이름의 뜻을 풀이하고 2장을 시작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적 교회는 비록 세상에서 우대를 받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께서 하늘성소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이길 세력은 없습니다. 사단이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유사교회를 만들어서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계시록을 연구하면 잘 드러날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 진리가 가르치는 대로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진리의 정로를 따라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주시고 성경을 기록하여 주셨지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작년에 공부하면서 사단이 교회를 모방하여 유사교회를 만들어 세상에 군림하는 것을 이미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목사님이나 저나 애청자들께서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말씀을 연구하시고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신앙으로 생활하시다가 영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데 함께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12.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지요.

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이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계시록을 기록하여 주시고 이것을 읽고 듣고 깨달아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서 우리 주님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복을 주시고 오늘도 진리를 따라 바른 믿음으로 생활하는 하루가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